_book review_

homo fascistus
프랑스 파시즘도 파시즘이다

김용우,『호모 파시스투스』(책세상, 2005), pp.313

이 학수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파시즘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에밀리오 젠틸레를 비롯하여 로버트 팩스턴, 작년에 국내를 방문했던 파스칼 오리올로 가문한 파시즘 전문가들이 저서들을 발간했고, 1) 국내는 국내로서 학위문과 역량서들이 출판되었다. 2)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 관련 전문 연구서가 발간된 것은 당연히 가움일이다. 평자는 풍부한 번역서도 충정은 특히 서양 사본야에서 해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저서가 간행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편이다. 번역서와 저서와의 관계는 축구시합을 구경하고 응원만 하다가 직접 운동장에 내려가 뛰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파시즘

1) Emilio Gentile, Qu'est-ce que le fascisme? Histoire et interprétation(Gallimard, 2004); Pascal Ory, Du fascisme(Perrin, 2003); Robert Paxton, The Anatomy of Fascism(Knopf, 2004); Robert Soucy, Fascisme français ? 1933–1939, mouvements (Autrement, 2004); Georges Mosse, La révolution fasciste vers une théorie générale du fascisme(Seuil, 2003); Fabien Ollier, Idéologie multiculturelle en France: Entre fascisme et libéralisme(L’Harmattan, 2004).
2) 장문식,『이탈리아의 대기업과 국가 – 페아트의 경우, 1918-1943』(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로버트 팩스턴, 손명희, 최화영 웅김,『파시즘. 일장과 광기의 정치학』(교양인, 2005); 자넷 밀/ 패터 스타우트마이어, 김상영 웅김,『에코파시즘』(책으로만나는세상, 2003); 강준만 외,『부더리온 파시즘』(인물과사상사, 2000); 마크 네오플레우스, 정준영 웅김,『파시즘』(이후, 2002);김주용 외,『유럽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문화』(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관련 서적이 이렇게 발간되는 데는 파시즘에 대한 경고가 그 어느 시점보다 필요해서일 것이다. 보수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 국내외 파시즘 세력을 지지하고 나설 지 모르기 때문이다. 출판계에서도 이 런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1936년에 출간된 다니엘 게렌의 저서를 최근에 재간하기까지 했다.3)

저자는 오랫동안 파시즘에 철저하게 연구가이다. 박사학위 논문발표(1994년 7월) 후 학술지에 발표되었던 저간의 연구들을 모아 이번에 단행본으로 묶어 『호모』를 출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목이 너무 근사하다. 파시즘 관련 국내외 저서들 중 이보다 더 아심찬 제목은 없을 것이다. 한때 어떤 국내 경제학자가 『제2차본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비견할 만한 일이다. 아마도 저자가 국제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되더라도 그 만큼 시야가 더 넓어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는 국내에서 파시즘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파시즘이란 미담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동기는 역사가 백과 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담기도 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슬며시 이야기하기 위해, 또 인간을 역상하고 강요하는 파시즘이 잠복적이건 외부에 드러나건 세계 역사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이어서 그 정체를 제대로 한번 규명해 보려는 데 있는 것 같다.

1. 이데올로기로서의 파시즘

파시즘은 지극히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국가를 파괴하고, 권위적이면서 혼란을 조장하고, 현재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도 과거의 통치로 복귀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복고적이면서 동시에 근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혁명이 아닌 듯 하면서 혁명적 전통에 속했던 요인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수수께끼 같은 파시즘 연구를 체제, 운동,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데올로기적 기원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 뒤(1부), 운동으로서의 파시즘은 프랑스의 파시즘을 예로 들어 자신의 구체적 연구를 보여주고(2부),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 파시즘 운

3) Daniel Guérin, Fascisme et grand capital (Editions Syllepse, 1999).